

해남군, 민선 8기 공약 추진율 77.3% '순항'

5대 분야 총 113개 중 60건 완료·계속...53건 정상 추진 군민평가단 12건 안전 선정...공약 투명성·실효성 강화

해남군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이 평균 77.3% 추진율을 기록하며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점검과 군민 의견 반영을 위해 군민 참여로 점검하는 군민평가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남군은 민선 8기 5대 분야의 총 113개 공약 세부 사업 중 60건을 완료·계속

추진 중이며, 53건을 정상 추진 중이다.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은 공약이행 과정에서 군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질적인 향상과 투명성을 위해 만 18세 이상 군민 중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과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된 총 30명의 군민으로 구성됐다.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해 선발

됐으며 연간 3회에 걸쳐 평가단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1차 평가단 회의에서는 군민평가단 위촉식에 이어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을 주제로 한 교육과 총 12건의 심의 안건을 선정했다.

앞으로 군민평가단에서는 사업별 담당자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후 분임별 심의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3차 회의는 내년 1월 7일 열릴 예정으로 분임 토의결과를 토대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의견대로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군민평가단을 통해 도출된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으로, 최종 권고

안·수용 여부는 해남군 누리집에 공개해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자체점검과 주민배심원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등을 통해 공약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과 예산 상황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공약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달성하면서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와 동력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해남군이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군민평가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완도군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으로 선정된 '112한달음선'의 발대식이 지난 7월 5일 완도경찰서 장보고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하반기 적극 행정 공무원 4명·협업 2팀 선정

112한달음선 출항·찾아가는 창구 운영 등 군민 체감형 행정 호평

완도군은 "최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4명과 2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무원은 김남욱 기획예산실 주무관, 정호용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금행 가족행복과 주무관, 문정상 청산면 팀장, 협업팀은 완도읍 총무팀과 복지2팀이다.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부서와 군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적극 행정 11개 사례 중 예선 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8개 사례(개인 6, 협업팀 2)에 대해 온라인 투표와 심사를 진행했다.

김남욱 기획예산실 주무관은 정보 전달 목적의 형식적인 유튜브 제작·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유행하는 영상 콘텐츠에 맞춰 재미, 소통을 겸한 콘텐츠를 제공해 군 유튜브 채널 활성화에 기여했다.

정호용 행정지원과 주무관은 경찰관 미 배치 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주목하고 완도경찰서, 완도군의회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긴급 대응을 위한 민간 선박 '112 한달음선'을 출항하는 데 기여했다.

김금행 가족행복과 주무관은 어르신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경로당 냉난

방 보조금을 선지원 후 심사로 개선해 호평을 얻었다.

문정상 청산면 팀장은 지역 내 농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익숙하지 않아 면사무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찾아가는 창구를 운영했다. 협업팀으로 선정된 완도읍 총무팀과 복지2팀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MCS 완도지점, 사회단체와 연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부군수는 "앞으로도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과 협업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섬 도장찍기 챌린지' 진도서 43억 걸음 모였다

한국섬진흥원·광주신세계 협업...목표 걸음수 87배 달성

한국섬진흥원(KIDI)과 광주신세계가 약 70일간 협업한 '한국 섬 신세계 도장찍기 챌린지' 시즌3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9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참여자가 걷기 미션을 수행하면 목표 달성 시 참여자와 섬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기부형 챌린지다.

시즌3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 1만 436명이 참여해 43억 9천 481만 500걸음이 모였다. 이

는 목표 5천만 걸음의 87배를 기록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진도 본섬을 제외한 섬 지역 초등학생 50여명에게 오디오 북 및 전자책 구독권(1년)이 제공됐으며, 참여자 중 추첨으로 선정된 500명에게는 기프트콘(1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진도의 상조도, 하조도, 관매도를 방문한 이들에게는 팜도시, 접이식 방석, 손수건, 섬엽서 등으로 구성된 '섬 걷기 한상차림' 굿즈가 전달됐다.

이 챌린지는 헬스케어 플랫폼 '워크

온'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참여자는 하루 최대 1만 걸음을 기록할 수 있었다. 앞서 시즌1에서는 여수지역, 시즌2에서는 완도지역 소규모 섬 주민들에게 식료품이 지원된 바 있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는 "3회째를 맞는 이번 챌린지에서 역대 최고 걸음수가 모였다"며 "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장찍기 챌린지는 섬 주민 지원과 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국섬진흥원과 광주신세계가 협업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섬진흥원 교류협력팀(061-802-1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 "맹그로브 저온피해 방지 총력"

월동탄·황소독 친환경 자재 혼합 사용

신안군은 19일 "신안 갯벌에 도입된 맹그로브의 성장을 도와 월동기 냉해와 저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월동탄과 황소독이라는 생분해성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피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방지를 위해 사용된 월동탄은 식물성 오일 기반 자재로 수목과 나무의 냉해와 동해를 방지하고 썩는

결빙과 저온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황소독은 겨울철 병해를 방지하며 나무를 동해로부터 보호하는 친환경 자재로 알려져 있다.

신안군은 이번에 이 두 자재를 혼합해 사용함으로써 기존 멀칭재료보다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맹그로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2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맹그로브는 탄소 흡수와 생태계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이다. 신안군은 지난 7-8월에 일본산 210개체와 베트남산 450개체를 포함한 660개체를 도초면 죽연리 갯벌에 시험 식재했다.

신안군은 이식된 맹그로브의 생장 특성, 지역 갯벌과 기후에 대한 적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맹그로브가 탄소흡수와 생태계 복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도 추진 중이다. /신안=양훈기 기자

나주시, 상하수도요금 인상 유예

내년 6월말까지...완화 효과 15억 규모 추산

나주시가 고물가·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자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등 시의회의 공조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2025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주시는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생산원가 대비 수익이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당초 2025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을 11.1% 인상할 계획이었다.

현재 나주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49.2%, 하수도의 경우 8.12%로 전남도 평균(상수도 62.6%·하수도 26.5%) 이하인 상황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물가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심도있게 고려해 시의회의 공조, 조례개정을 통해 인상 유예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인상 유예 결정에 따른 나주시 전체 가구 요금 완화 효과 규모는 약 15억원으로 추산된다.

나주시는 2023년도 기준 유수율 85.3%로 4년 연속 도내 22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하며 탁월한 물 관리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노후 상수도관(56.2km) 정비'를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상수도 공급 및 관리체계의 획기적

인 개선으로 공중위생 및 주민 생활환경 향상, 연간 수돗물 약 28만3천리터를 절감 유수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내년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했다"며 "추후 재정 건전성 차원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소통하며 요금 현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정준환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16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의 최소화를 지시했다. (나주시 제공)

영광군, 재난행동요령 안전 달력 제작

시기별 재난 행동요령 담아...취약계층·시설 배부

영광군은 19일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 새해를 맞아 월별·시기별 재난행동요령과 행동요령을 담은 벽걸이용 안전달력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안전달력은 ▲대설 ▲산불 ▲폭염 ▲태풍 ▲지진 ▲화재 등 연중 발생빈

도가 높은 12가지 재난 유형을 소개하며, 각 달별로 해당 재난에 대한 안전 대처 요령과 예방 수칙을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제공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달력은 경로당, 어린이집,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안전취약시

설을 비롯해 실과소 및 읍·면 사무소 등에 부착해 지역 내 안전 취약계층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안전달력은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무안군, 전지훈련 유치 '시동'

내년부터 스포츠 관광마케팅 활성화

무안군이 2024-2025시즌 전지훈련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남악다목적생활체육관에서 유소년 배드민턴 선수와 지도자 100여명이 참여한 동계 전지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전국 5개 시군 스포츠클럽(서울 마포, 광주 송정, 전남 목포·영암·곡성)이 참여해 무안스포츠클럽 선수들과 합동훈련 및 연습 계임을 하며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무안군은 훈련장을 방문해 지역특산물과 음료수 제공, 시설 무료 대관 등으로 선수들을 격려했고 지원했다.

무안군은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스

포츠관광투어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1월 개최되는 무안겨울송어축제와 연계한 태권도 스포츠관광을 시작으로 스포츠 관광마케팅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미간 스포츠산업과장은 "무안군을 찾아온 선수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훈련을 마무리해 내년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스포츠트레이닝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칠 예정이니 선수단의 많은 방문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남악주민다목적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전지훈련에서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무안군 제공)